

스에반 參加者入國拒否

共產主義者라고美軍人會

금년 여름 八月十五日부터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릴
세계교회협의회(ＷＣＣ) 대
회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
약五千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국내에서
는 이 참가자 중 특정한
인물에 대하여 압력거부의
운동이 일어나 내외의 주
목을 끌고 있다.

최근의 미국의 저명신론가 「크리스찬 선주리」에 의하면, 미국의 재향군인회에서 금년 三月부터 에바스톤에서 열리는 세기 대회에 공상주의자 및 미국의 자본주의에 배반되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 운

등을 일으킨 것을 결의하였다 한다. 위험인물로 지명된 사람들 중에는 제네바의 W O O 본부 총간사이며, 대회의 사회자로 되

어 있는 비자, 토트
사(和團人)와 補給을로하
기와의 크라크레하 補수
로마도카 박사, 영가리의
리봉드, 補給 補給, 알바트
기리키, 補給의, 補給補給
감독 아비드슨 씨를이다.
그 이유는 로마도카 補
수와 補給기 補給은 미국
補給(AGC)가 공격하고

있는 인물이며, 그들의 동포를 피땀겨 압박하고 있는 공산정부에 복음을 주었고, 갈·팔트도 一九五二年七月三十日の 동성분會에 배례키 감독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신문의 기자들은
임국 거부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철의 장막의 배
후에서 에큐메니칼(교회일
치운동)운동에 협조하고

있는 사할린인데, 유명한 교회인만큼 공적의 목표가 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할트의 기사도 정화한 것은 아니고 토프트 박사나 아비드슨씨에 대한 비난도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또 쉬카프의 신문도 이러한 운동은 무책임

原子力管理에 대하여

아이준하위 미대통령이,
작년 十二月 八日에, 유럽
총회에서 원자력의 국제화
리와 평화적수단에 사용할
제안에 관한 역사적인 연
설을 하여 세계의 뻔세우
을 일으킨것은 우리의 기
의에 새로운 일이다.

아이즈나워의 이 제안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거의
다 열렬한 찬의를 표하였
으나 다만 소련측에서는

이 제안의 진실성을 의심
하여 여러가지 사측적 냉
평을 하였고 그뒤에 다른
이 원자병기 사용금지안을

拒否

美軍人會

日本代表 四十餘名 參加

今夏에 반스온大會

오는 八月 미국에서 열릴 세계 紅十字會의 (W.C.C.) 제二回 國際會議에 美軍人會가 代表로 參加할 計劃이 있다. 이 會議은 美軍人會의 宗旨을 宣傳하고 世界 紅十字會의 發展을 圖할 機會이 있다. 美軍人會는 此次 會議에 參加할 計劃이 있다. 이 會議은 美軍人會의 宗旨을 宣傳하고 世界 紅十字會의 發展을 圖할 機會이 있다. 美軍人會는 此次 會議에 參加할 計劃이 있다.

하면 약四十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 교회중 WOO에 다
종되어 있는 것은 일본기
독교단과 일본성공회의의 두
교회인데, 교회의 정식 대
외원으로 참가하는 일본기
독교단 총회의장 小崎道雄
동상의회(常議員) 명치하
別當 村田四郎, 大石繁治,
三岡와 留田성교회총무 八
代主教, 동立敎大司會수官藤
吉, 東京都平安女學院長 岡

鳥松太師의 三州鎭 會
영인도, 그 밖의 工部
서에서 考가하는 鎭
표는 約四十英里 鎭
한다. 또 諸將의 鎭
로 알려진 實川鎭은
대회의 本營을 設
지금 미국에 鎭
있는 鎭도 鎭
하게 鎭
(普通)



부활하신 예수

예수께서 가서서 먹을 가져다가 저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
은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으로 제자들에게
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 21: 13, 14)

관리에對하여
내놓았다. 그리고 그뒤에
미시간에 이 문제의 회담
이 있었으나 실통한 결과
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후에 이땅에서 이 위
자력 문제가 떠돌아지기는
지난三月一日 남태평양
「비기니」에서 된 미국의

수소탄 실험 때문에 일
어부지 희생을 입어 그
생명의 위엄을 느낄 수 아
나과 그들의 생명선인 연
연관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일반국민의 생활을 위협하
고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
로 큰 불안을 준다고 일

본의 여론이 높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에서도 원동 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원동력이 차기 정권과 나아가서는 전인류의 운명에 미치는 중대문제로 날이 지자간에 또는 국제간에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고 필박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런중에는 우리 그리스도교도 표임으로서는 도저히 침묵할수 없는 큰 문제인 우리의 노리를 떠나지 아니하든바 이번에 일본 N O O에서는 상임상의 원회를 열고 비기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적

리적 三해를 물어서 유
의 뜻을 표하고 「미국
〇를 통하여 전미국 기
교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원자력을 온전히 평화적
용도에 한하여 쓰므로 이
류의 복조에 공헌하기 위하
여 국제판리의 실현을 추
진하도록 그 협력을 간청
하고 아울러 이 긴급한, 무

제 의 해결을 위하여
교회 협의회와 및 국제서
표연맹협동의 기관인 「크
제문제위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각국의 크리스찬의
협력을 구한다.」는 결
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원자력문제에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바 피차 못
할 께박한 문제로 전 세
계사람이 경악하여 풀기하
여야 할것이요 특히 우리
기독교신자로서 중대한 관
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아
니하면 안될것이다.

우리는 전에도 이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바있
지만 이것은 인류가 하

나를 모욕하여 자멸의
길에 빠지려는 악마적
이니 먼저 우리는 이것을
전쟁에 사용하려는 정치가
군락가의 분열을 재촉하는
동시에 이 일차적의 원인과
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기록곡곡인정

半世紀 期成委組織코再建에出發

在日YMCA 四月二十五日紀念禮拜盛大

在日僑胞의 모든 機關中 特히 青年學徒會의 德、體、의 研習을 向上을 期하여 創設된 在日YMCA(東京都千代田區神田區樂町二丁目一에서)는 四月二十五日 創立第十八週年을 맞이하여 그 紀念禮拜를 同日에 再建會를 開會 再建委員이 指導하에 今後 一層의 成果가 期待되는 바이다. (사건은 開會會場)



同YMCA는 지금부터 約半世紀前인 一九〇八年 當時 留日韓國學生會를 中心으로 設立되어 東京이 日本의 文化의 中心地였던만큼 우리나라 各界의 活躍하는 人物中 日本에 留學 또는 滯留한 이는 거의 直接間接으로 同會와의 關係를 가졌던 것이며、國際的으로든 更十年間 同會의 存在는 우리 青年學徒들의 氣象을 보이는 것이었는데、終戰後의 多難한 社會에 處하여 不振의 一 路를 거둔 同會는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同會會場도 荒廢된 채로 있었음、現在 百萬가 가까운 在日僑胞의 民族的 體面으로든 同會의 再建을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同會에서는 再建會를 開會하에 四月二十五日 第四十八週年 紀念禮拜와 아울러 再建會 委員長으로 張利穆、尹河英、吳允吉、申美善、白聖德、申萬熙、金玉善、張永萬、張斗善、張氏外 七十八名을 選出하여 開會會場 組織會場 다 하였다. 그리고 再建會場은 (1) 會場修繕完成、(2) 宿舍舍地改裝、(3) 圖書室 施設完成、(4) 月刊紙續刊、(5) 室內運動室完成、(6) 文化會館施設完成、(7) 有能幹事招聘 等이라 한다. 同日의 紀念禮拜에는 同會 總務金萬枝牧師의 講演이 있었으며、在日 카나다宣教師 파우열牧師의 祝辭가 있었

今日의 소련의 宗敎政策

福音書의 內容을 變改

카렐리 통신기관(NOR)에 의하면 마르크스 소련 宗敎政策은 새로운 宗敎에 대한 정책으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양면"을 전진하는 한편 宗敎의 福音書의 內容을 變改하여 마치 "그리스도는 당시에 자본주의자들과 또는 반종교개혁의 宗敎에 대해서 그는 노동자 宗敎의 벗이었다"고 믿도록 하며 만든 것인데、이 새로운 宗敎 정책의 대상은 소련 국민 뿐만 아니라 그 위생국가 국민에게도 전진하여 서구파의 宗敎적 자유의 影響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宗敎의 기술자는 모한 정책의 기술자로는 서아정교회 니콜라이 수도 대주교라 하는데、그 번

○ 지금부터 千九百五十三年前에 誕生한 예수는 宗敎의 人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가 낳는데、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아기의 어머니는 성경에 의하면 聖母에게서 잉태되어 토지왕 자치하지 않았. 동부에서로, 차고 현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는 없었다. 예수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돈도, 재산도, 는 받지 않았. 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 예수는 일생 동안 전

『科學的教育精神破壞 非現代의還元低落』

맞춤법 폐기에 한글학회 聲明發表

한글학회에서는 지난 十八日 同志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三月十七日 이 대동양의 "현행 맞춤법 버리라"는 담화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대체로 그동안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에서 많은 회수에 걸쳐서 신중히 토의한 결과 한글의 맞춤법을 이 이상 더 삼고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는 데 결론을 얻은 것이며、강권적으로 현행 맞춤법을 버리라는 것은 과학적 교육정신과 민족문화 공양의 파괴라"는 다음의 성명서를 十九日 발표하였다.

성명서

지난 三月二十七日 대동양 당회는 三개월 이내로 현행 맞춤법을 버리고 옛 성령 맞춤법에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려 사회의 불안과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분학회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첫째、문자의 간이화를 주장하는 행정부 주장에 우리도 전적으로 찬동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문자의 간이화가 다만 발음을 몇 개 없애고 획수를 적게 하고 또 통일된 약속의 구속됨이 없이 임의로 쓰는 데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현행 맞춤법을 교과서 개선에

이 開闢의 表面의 인 發단은 去年四月二十七日 남자로 管下에 通達된 全韓 國務總理訓令 第八號라는 白國務總理의 "訓令"에서 시작된 것인데、그 內容은 現行 맞춤법은 여러우니、이것을廢기하고 舊法字법을 採用하여 政府、官公文書에 使用하며、준비가 되는 대로 學校의 敎科書도 이 舊法字법으로 改正할 것을 규정한 命令이었다.當時 "文" "字"를 비롯한 全國의 各

스웨덴과 그리스도교

헤그란드주사 강연

재일 한국 YMCA 정례와 이스멘스클럽

재일 한국 YMCA의 정례행사인 "와이스멘스"를 위해, 지난 주간예회는 스웨덴 선교사 헤그란드 주사의 강연이 있었다. 동씨는 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있었으나, 중공을 피하여 東京YM聯盟 선교사로 천령 지도에 주력하고 있는데, 강연요지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은 본디 도덕이 많고 남의 나라 침범하기를 일삼지 않던 나라였으나,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다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 유학생도 미국으로만 가지 말고 스웨덴으로도 오기 바란다. 또 스웨덴에서도 한국에 유학생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책을 다하여 지주, 봉건주
의자, 부조악착취자들과
파괴한다. 항상 그는 인민을
옹호하고 언제나 노동자
계급의 벗이었다. 일생동안
그는 적극적인 선전을 위
하여 전투에 섰었다. 모
든 사람에게 조국을 사랑
하고 정의의 사랑하고 인
류를 봉사하라고 가르쳤다.
불행히도 그가 신뢰하는
십이간부 가운데 유다라는
자가 있어서 예수를 반동
주의자들에게 몇 톤의 돈
으로 팔았다. 그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하나님과 자
기의 조국을 속이고 식민
지주의적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는 자들과 같은 무
리였다.

○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러나 조국애, 인
간의 평등, 우애, 이러한
예수의 교훈은 전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 모든 우리 동국인—
불교도, 가톨릭교도—은

사회 여론의 반대를 누르
고서 일제(日帝)三十六년
의 치하에서 민족 사상과
정신에 입각한 전민족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로 이
루어진 문화공탄을 일조해
하물어 버리고 지리멸렬한
비현대적 문자생활로의 환
원 저항을 요한다는 것은
현대 자유애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고, 민주
정신에 위반되는 일이다.

바리다면

에만五億환

機關에서 그 不當性을 指
摘하고 撤回을 要求하여
國民의 여론이 자자하게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른바 「旧制자법」이란 무
엇을 가리킨인가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
은 과거에 한 번도 우리
말의 맞춤법의 어떤 규정
이 成文化된 일이 없고
日帝 總督府에서 定한 것
이 였고, 그것은 現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金文敎部長은 國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
게 나눠 주어야 한다는
농업정책을 지지한다. 이것
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예수의 탄생일에는
우리는, 성경과 조국애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평등 또는 형제우애를 찬
미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인 모든 가톨릭 신
자의 행복을 비는 바이
다.

소련의 교회에서 에스탈린 기념일

모스크바 교구장의 이름으
로 금년도 중요 종교행사
를 실은 「레프」 정교회를
역(曆)이 발간되었는데
그중에는 「十月혁명 기념일
레닌, 스탈린 기념제전, 메
이데이, 소련 육군기념일,
국제부인의 날」 등이 실려

語彙委員會를 組織하여 檢討
하게 하였다. 이로써 國語
에는 「簡素化」라는 문제
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國語審査委員會에서는 한
글 分科委員會 설치하여 한
글 簡素化를 討議하였는데
各方面으로부터의 提出된
代案(現行法에의代案)은
여러가지였으나, 하나도 現
行 맞춤법에 代身할 만한
것이 없었고 다만 좀더 쓰
기案 하나만을 採擇하여
最上案으로 認定하고 同分
科委員會 解消한 것이었다.
이로써 現行맞춤법 以上으
로 簡素하고 合理적이라는
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
하였으므로 이에 國民은
잠시나마 安心하게 된 것
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三月二十
七日 李大統領은 特別談話
를發表하여 일이 순리적
으로 되기를 기다렸으나
되지 아니하므로 強硬적으
로 할 수 밖에 없으니
지금부터 三個月 以內에
現行 맞춤법을 버리라 하
여 듣는이로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런데, 實際로는

있다 한다. 그리고 수태고
시의 성일, 종려의 주일
같은 명절은 정치적인 식
전의 날보다 작은 할자로
짜하여 있으며, 다만 부활
절 하나만이 메이데이와
같은 글자라고. (U.S.I.S)

日本의 正教會

兩파타협으로
北美에 直屬

니콜라이호로 알려진 日
本 하리스토스正教會(東京都
千代田區神田區河合四一)
는 戰後八年間 義全系와
反全系(白系系)로 思想
的인 對立이 계속되어 한
교회 안에서 따로따로 예
배를 보고 있었으나, 이번
이리네이 베기시主教(白系
系人系)와, 니콜라이主教
(親全系)와의 사이에 和解
가 成立되어 日本의 正教
會는 모스크바의 아라세이
總主教의 支配를 공인, 北
美正教會에 屬하기로 되었
다 한다.

學校의 敎科書等을 更新하
려던 數字의 二七七十
三萬八千名의 小學生, 三十
萬名의 中學生, 十八萬名의
高等學生, 七千여名의 大學
生에게 分配될 만한 敎科
書를 만든다면 設令 그 만
한 物資가 있다 하더라도
그 製作能率이 三個月은
거녕 三十個月이 지나도
實現의 可能性이 희박하
는 것이며, 지금 各學校에
서 使用하는 敎科書는 全
部 現行 맞춤법에 依한
것이기에 때문에 그것을 모
두 버리고 새로 만들게
되면 五億圓이라는 費用이
유지되 돌아오고 말게 될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小, 中, 高等學校에서 가르
치는 近四萬名의 敎師로
하여금 現行法에 依據하여
習得된 것을 버리고 再敎
育을 받게 하기는 더욱
至難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新任된
李文敎部長官은 記者의 질
문에 대하여 推進시키겠다
하였는데, 부디 地位를 지
키기 위하여 推進시키지는
마시기를 바란다. (참)

美舊敎教育 家協議會

思想統一에 反對

미국 가톨릭 교육자 협회
회는, 미국내의 가톨릭 교
育자가 서로 단결은 할지
언정 사상은 통일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로 思想統
一案에 반대의 투표를 하
였다 한다. 또 전미국 가
톨릭 교육협회는, 우리의
태도의 일률화를 목적삼는
사상의 통일은 위기에 직
면할 때 판단력이 둔하게
되는 것이며, 현대의 무가
치한 사상을 그대로 감수
할만큼 이상
을 잃어버리
게하는 것이
므로 가톨릭
교도는 단호
이 이를배격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안된
다는 결의문
을 발표하여 내외에 선명
한 바 있었다고. (U.S.I.S)



호텔의 一室을 禮拜堂으로

뉴욕시의 빌트모아 호텔
第三百號室은 목도와 예배
를 드리는 예배당으로 사
용되고 있어 이 호텔에
오는 나그네와 종업원은
이 고요한 一室에서 예배
와 목도를 올리고 있다
한다. 이 호텔 예배당을
생각한 것은 一九二三年
당시에 빌라델피아 사람으
로 이 호텔에 자주 오던

新韓學術研究會

陣容
強化

在日韓國學生의 學術研究의
장려와 援助를 目的으로
組織된 新韓學術研究會(東
京都千代田區神田區旅榮町二
四、會長金龍周氏)에서는
지난 四月九日 總會를 開
催하여 新年度 活動方針을
決定하고 任員改選으로 陣
容強化를 꾀하였다 한다.
同會에서는 每月 第一土曜
日에 月例會를 열어 會員
의 研究發表, 名士의 公開
講演會의 實施, 機關紙「新

新韓」의 發刊等을 하고
있으며, 三, 四月例會에서는
「戰爭犯罪論」(吳貞根氏)
「科學史上에 있어서의 民主
主義」(洪昌植氏) 「韓國文
化史說」(姜奎氏) 등이
있었다. 그리고 新任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長金容周氏, 幹事李現坤
(明大) 吳貞根(明大) 趙
萬濟(東大) 金元經(東大)
姜昌圭(東工大) 李熙森
(慶大) 諸氏

平和祈願祭로 五月一日을

미국 그밖의 여러 나라의
기독교와 유대교에서는
지난 五月一日을 세계평화
祈願日로 지냈다 한다.
이 平和祈願제이데이 운동
은 미국내에二千五百여의
지부들 가진 미국 청년상
임회의소에서 주최하여 미
국 및 해외의 지부들 통
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날을 平和祈願제이데이로
지킬 것을 호소하였으며,
유대교의 목사는 이날의
예배(安息日)에 平和祈願
기도를 올렸다 한다. (U
S.I.S)

講壇

山上的 그리스도

故鄭景玉教授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가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이 다. 그 통일이 있는 일체 미와 부동의 자세를 바라볼 때에 영원에 대한 불가사의의 힘을 직감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이제부터는 산에 오르기를 즐겨 하겠다. 그가 첫 번째를 택한 산에 오르려고 그 귀한 「보통」을 주실 때도 산에 오르려고 형상을 변화할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마음이고 적실 때에도 산에 오르려고.

共產主義란 무엇인가

— 共產主義에 대한 基督教의 對答 —

여기에 실은 글은 미국 기독교 협의회회(NOC)에서 발행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에서 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중남미(中南美) 각국의 그리스도교의 교직자의 손으로 연구된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와 태도라고 할 만한 점을 간단하게 수록한 것인데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직접 당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대한 참고가 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책은 一, 공산주의의 호소와 그 힘, 二, 공산주의의 무력, 三, 공산주의의 지도(企圖), 四, 공산주의의 교회에 대한 지도(企圖), 五, 그리스도인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六, 기독교와 경제질서, 七, 공산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대답 등, 七장으로 되어 있으며 필자는 큐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 등 각국의 교직자가 분담하여 집필한 것이다. (日本基督教協

議會文書事業部發行 價一〇〇圓)

그러나 예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생의 원리는 몇 가지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상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 그는 인생의 앞을 멀리 내다보셨던 것이다. 나는 이 시대보다도 선견을 더 요구한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견이 있는 민족은 결국 멸망한다. 상임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성공을 바랄 수 없다. 개인 생활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우리에게선 선견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다면 우리의 생활에 내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서만 살려고 하고 이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보려고 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는 이상도 꿈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받아 보는 신문은 하루씩 앞질러서 나온다. 잡지도 다음날 호가 벌써 이틀 본에나 타난다. 그러나 그 속에 실려있는 정신과 내용은 시대를 앞서 나가기 어렵다. 우리의 사상과 생활과 사업이 현재에서만 움직이고 미래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은 절망에 빠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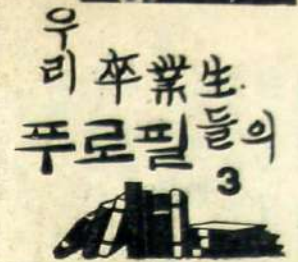
여러 면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신론 유물론 위에 선 종교에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체주의 권력과 결합되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직 가운데 나타난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 다. 왜냐 하면, 이 조직은 세계에서 최대의 국민의 하나인 러시아를 지배하고 거기서 동구라파 및 중국 전토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에는 여러 면이 있으니, 아래 그 하나씩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역사적 이론 이 운동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十九세기의 본에 독일 및 영국에서 그 생애의 태반을 보냈는데, 그는 거기서 사회의 드러난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여 거기서 기본 틀을 철학을 발전시켰다. 곧, 첫째, 과학은 우주의 모든 신비를 무는 열쇠를 가진 것이니 신화와, 둘째, 대산업(大産業)에 있어서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 이것이 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그 친구 엥겔스와 함께 새로운 과학을 발전시켰으니,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의 과학이요, 넓은 조직과 세 조직체와의 투쟁, 운동에 관한 과학이 있다. 왜냐 하면, 이 운동이 인류 역사의 중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생활해 가는 방법,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道具)를 소유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하
면 코웃음을 지며 모든
것을 께리주의로 판정하여
버린다. 이는 결국 자기의
타락을 다른 사람에게
임지우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자기만에
지나지 아니한다. 무슨 일
이 있든지 우리의 이상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카와
씨(實月氏)의 소신에
는 양이 양자에게
물리며 멀리 하
키며 태양을 쫓고
그림이 있던 것이 기억
그들의 농동자는 날카
변해있다. 말에는 힘이
다. 그들의 혼은 살아
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수에서 가지쳤던 그 이
그 선견이 있어야 하

俞長老陳述에 對한 解答 (2)

人同歸이日本人이나
北鮮人共產主義者로
하리라 日本共產黨을
여 여러가지로 不法의
행 하도록 利用當하고
는 것이다. 나는 이
間이야말로 우리들의
自由 民主 人權을
大하여만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러면 敎人들은
早晚間이 진심을 그들이
있는 地方에 퍼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信者는
패망하였으나 지금은 세
운 연합이 우리를 에워싸
고 있는 것이다.

있더라 맛있는 명을 만들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
는 또한 「네희를 이 세
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으
며 이 말은 참다운 그의
信者는 이社會를 早晩
不正義, 허위의 가르침 및
모든 罪惡을 防止하는 자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
味하는 것이다. 잔인하고
唯物的이며, 無神論의 共產
主義보다도 오늘날 社會의
精神生活를 위임하고 있는
曰 큰 罪惡은 없는 것이
다. 그러므로 基督教敎會는
強力히 이 共產主義의 위
협에 대하여 最大의 努力
을 하며 가장 큰 방패가
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나는 會長老의 質問에
대하여 그야말로 確實히

地方 各敎會 또는 地方
支社支局의 責任者 여러분
께서 地方通信等 보내주시
를 항상 감사하는 바입니다.
다. 本紙는 在日 韓國敎會
總會의 機關紙인만큼 이제
까지도 그러했거니와 앞으로
로 各敎會의 通信記事는
임시 報道하겠사오니, 내일
의 어떠한을 據구하고 所屬
회 또는 교회 所屬機關의
음직인은 신속히 本社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언제나 늦어서
야 本社에 到着되어 그
記事가 紙上에 나타날 때
는 相當한 時日이 지난
뒤일 때가 많았읍니다. 그
리고 記事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쓰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한글 교실

(제 45 시간) 張 曉

다섯째, 뒷가지가 붙어서 풀이
씨가 된 것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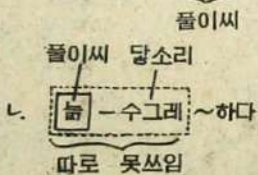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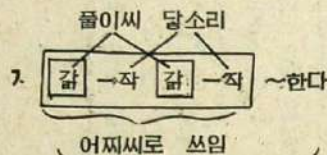
뒷가지(接尾辭)가 붙어서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말이라
도:

- 엄(음)다 《목엄다, 웃음다》
- 알(영)다 《감알다, 겸알다》
- 브다 《간브다, 흥》

와 같은 부분은 받히지 않고
뒷 부분의 끝 받침을 그 첫
소리로 적어야 합니다. 이것들
은 언제나 받침으로 끝난 부
분 아래에만 붙어서 그 자체
가 벗어난 끝바꿈(變則活用)하
며(-엄다 따위), 또는 받침과
합쳐서 거센소리, 된소리로
익 어 버리기(-브다) 때문에, 뒷
가지로서의 소리가 따로 아니
날 뿐 아니라, 뒷가지로서의
드러내는 뜻의 힘이 약하므로
까다롭게 일일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므로 위의 -엄(음)다, -알
영)다, -브다가 드러나게 적
은 말은 틀린 것입니다. 다음
과 같은 말들을 다 이런 따
위에 속한 말입니다.

- 근지럽다 무겁다 미끄럽다
- 부드럽다 시끄럽다 어지럽다
- 징그럽다 (一엄다)
- 우습다 (一음다)
- 가깝다 거멀다 노랗다 누렇
다 밟깝다 밟겉다 파랗다
- 퍼렇다 둥그랗다 둥그렇다
- 싸느랗다 싸느렇다 (-알(영)다)
- 고날쁘다 고쁘다 슬쁘다
- 아쁘다 가쁘다 구쁘다 기쁘
다 나쁘다 미쁘다 바쁘다

것은 아니라도 역시 뒷가지)
가 붙어서 어찌씨(副詞)로도
쓰이는 것에나, 따로 쓰이지
못하게 된 부분에 뒷가지“하
다, -거리다”가 붙어서 풀이씨
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림으
로 보이면;



이런 말들은, 줄기에 붙은
소리가 닿소리(子音)일 때에
한하여, 줄기가 풀이씨로 쓰이
는 그대로 소리나는 것은 받
히어 적고, 줄기의 소리(들소
리거나 닿소리거나)가 달라진
것은 소리대로만 적습니다.

- 받히어 적을 것
- 깊숙하다
- 넓적하다
- 늑수그레하다
- 갑작갑작하다
- 급적급적하다
- 흔적흔적하다
- 압축압축하다
- 압축압축하다
- 받히어 적지 않을 것
- 풀소리가 달라진 것
- 남작하다
- 밀끔하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아버지(미달이 문을열고
고개를내어민다)
용국(부친앞에 엎드치며)
아버지!
아버지! 이게누구냐? 순남
이 애비냐?
용국(울며)네 제가 돌아
왔습니다.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순남엄마(부엌에서 뛰쳐나
온다)돌아온 남편을
보고 너무 뜻밖에 일
이라 잠시 우두머니
서 있다)
아버지(천연스럽게)그래
새 일일이 섰다더냐?
쿨룩! 쿨룩! 쿨룩! 에
이그놈의 기침(문을닫
고 들어간다)
용국(아버지가 망령이 난
걸 알아챈다)(순남엄
마에게)여보 내가왔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復曲

朱 泰 益 作

(4)

가세요 죽든 살든...
(말이 지나오지 않는단
용국 경합서? 다 거처왔어
요. 충분히 심사를 받
구 그리구 나온게요
산에서 내려오지는 별
서 얼마 지냈소 내
그동안 지은죄루 말하
면 백번 죽어야지 한
데 대한민국은 날 살
려 주는구려 내가 자
수해 내려오면서든
살길 생각지 않았소
죽어도 바른길을 좇고
정말 난 이제부터
새살림을 할작정이요
순남엄마(비로소 무한한
안심의 빛이 떠오르며)
순남아버지 고마워요
(반가워서 흐느껴 운
다)

순남엄마(비로소 무한한
안심의 빛이 떠오르며)
순남아버지 고마워요
(반가워서 흐느껴 운
다)
순남엄마(비로소 무한한
안심의 빛이 떠오르며)
순남아버지 고마워요
(반가워서 흐느껴 운
다)

순남엄마(비로소 무한한
안심의 빛이 떠오르며)
순남아버지 고마워요
(반가워서 흐느껴 운
다)
순남엄마(비로소 무한한
안심의 빛이 떠오르며)
순남아버지 고마워요
(반가워서 흐느껴 운
다)

예쁘다 (—쁘다)
 지난 시간의 “—없다”와는 끝
 바꿈함을 보면 구별이 됩니다.
 시름없다←시름없어 (愁)
 시끄럽다←시끄러워 (吵)
 또 줄기 (語幹)에 다른 소
 리 (이제까지 말한 끝바꿈하는

엷숙하다
 얼얼하다
 딱딱하다
 “넓다, 넓어 (廣)”는 있지만,
 “넓다, 넓어”는 있을 수 없
 으므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넓적하다”로, 달라진 것은
 “남작하다”로 적습니다.

형국, 손님이, 혜숙이를 찾
 되구……(술을들여 맛
 처 발을 다 먹어보게
 다)우선 요직하세요
 고나와 용국앞에 놓는
 용국 밥 이렇게 상을 바
 용국 (신기한듯이 집과
 들안을 기웃기웃 돌아
 본다)음 내가 내집에
 돌아 왔지 이런 내집
 에 돌아왔어
 손님엄마! 밥상을 차려
 고나와 용국앞에 놓는
 다)우선 요직하세요
 용국 밥 이렇게 상을 바
 용국 (신기한듯이 집과
 들안을 기웃기웃 돌아
 본다)음 내가 내집에
 돌아 왔지 이런 내집
 에 돌아왔어

형국, 손님이, 혜숙이를 찾
 되구……(술을들여 맛
 처 발을 다 먹어보게
 다)우선 요직하세요
 고나와 용국앞에 놓는
 용국 밥 이렇게 상을 바
 용국 (신기한듯이 집과
 들안을 기웃기웃 돌아
 본다)음 내가 내집에
 돌아 왔지 이런 내집
 에 돌아왔어

용국 (애원하듯)형국아
 형국 내게는 당신같은 형
 이 있을수 없구 손님
 이에게는 조국과 동포
 들 죽음속에 모라내는
 당신파워 역적의 하나

형국 (애원하듯)형국아
 형국 내게는 당신같은 형
 이 있을수 없구 손님
 이에게는 조국과 동포
 들 죽음속에 모라내는
 당신파워 역적의 하나

형국 (애원하듯)형국아
 형국 내게는 당신같은 형
 이 있을수 없구 손님
 이에게는 조국과 동포
 들 죽음속에 모라내는
 당신파워 역적의 하나

형국 (애원하듯)형국아
 형국 내게는 당신같은 형
 이 있을수 없구 손님
 이에게는 조국과 동포
 들 죽음속에 모라내는
 당신파워 역적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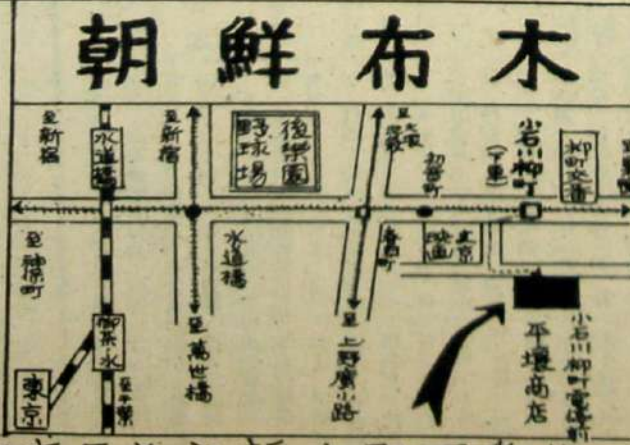
의 認權이기로 訂正합니다。

의 認權이기로 訂正합니다。

의 認權이기로 訂正합니다。

의 認權이기로 訂正합니다。

平壤商店



東京都文京區丸山福山町四番地
 電話・小石川(82) 0187・4879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神保町一ノ四九

共榮物産株式會社
 社長 朴壽虎

織物商
 宮本商店
 主 李大植
 京都市右京区西大路四條東入下ル
 電話 壬生(84)一四七一番